



KB국민은행, KB스타즈 통합우승 축하행사
KB국민은행은 2일 창단 이후 처음으로 통합우승을 차지한 KB스타즈의 축하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사내 방송을 통해 전국 지점에 생방송 됐다. 구단주인 허인 은행장(가운데)이 선수단, 직원들과 포즈를 취했다. /KB국민은행



진옥동 신한은행장, 조찬 세미나로 첫 현장경영 시작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2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서울·경기 지역 우수 고객 300여명을 초청해 조찬 세미나를 열고 현장 경영을 시작했다. 진 행장(가운데)이 고객들과 환담을 나누고 있다. /신한은행



NH협카드, 해외브랜드사와 농업·농촌지원 맞손
NH협카드사는 지난 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사에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이인기 NH협카드사 사장 및 해외브랜드사 한국지사 대표 4인이 참석한 가운데 4개 해외브랜드사(Mastercard·VISA·JCB·UPI)와 '농업·농촌 지원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가운데)이, 이인기 NH협카드사 사장(오른쪽 첫 번째), 박병규 NH협카드 부사장(왼쪽 첫 번째), 해외브랜드사 대표들과 함께 물품전달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협카드

보험연구원, 제5대 원장에 안철경

보험연구원 사원총회에서 안철경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사진)이 제5대 원장으로 선출됐다.

보험연구원은 2일 오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원장 선출을 위한 제1차 보험연구원 임시총회를 열고 안 선임원장을 최종 선출했다고 밝혔다.



안 선임원장은 현 원장의 임기가 종료되는 5일 제5대 보험연구원장에 취임할 예정이다. 임기는 3년이다.

/김희주 기자 hj89@



애경산업, 지역 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도서기증' 전달식
애경산업은 지난 1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성산중학교에서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한 '사랑의 도서기증' 전달식을 진행하고, 청소년이 꼭 읽어야 할 도서 590여 권을 전달했다고 2일 밝혔다. 성산중학교 윤건호 교장(왼쪽), 애경산업 송기복 상무가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애경산업

高소득 低물가국을 만들자



강형문의
세상읽기

2017년의 통계(UN)에 의하면 한국(2018년)의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1349달러다. 일본은 3만9561달러, 미국은 6만1247달러, 스위스는 8만1028달러다. 스위스가 미국보다도 그만큼 잘 살고 우리 국민생활은 이들 세 나라보다도 그만큼 뒤져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

그러나 물가를 따지지 않고는 여기에 바른 대답을 줄 수 없다. 지난 2018년 6월에 머서(Mercer)사(국제컨설팅업체)가 조사한 주요도시(209개)의 생활물가(주거비포함)에 따르면 동경(2위)과 취리히(3위)의 생활물가가 비교 대상도시 중 가장 비싸며 서울(5위)도 도쿄와 취리히 보다는 싸지만 뉴욕(13위)보다는 비싼 중상위(medium-high) 그룹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득이 얼마라는 것은 국민의 삶의 질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반쪽의 의미밖에 없다. 다시 말해 소득이 높더라도 물가가 비싸다면 사람들은 먹고 사는 것이 과거보다 풍요해졌다는 만족감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소득이 높은 사회를 만든다는 것과 물가가 싼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가위의 양날처럼 똑같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어떤 모양의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

직할까.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물가는 선진국보다 싼 품목이 많았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쪽이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더 비싸진 것들이 많아졌다. 고기값과 과일값, 음식료품 가격은 물론이고 옷값, 주거비, 그리고 호텔 숙박비와 운송비 등 서비스요금에 이르기까지 모두 선진국물가수준에 가깝게 비싸졌다. 만약, 우리가 지금처럼 생활비가 비싼 나라로 성장해 간다면 1인당 소득이 3만달러를 넘어서고 성장률이 높아졌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가 이 시점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점은 지금까지 우리가 성장에만 관심을 가졌지 저물가국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에는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않았다. 우리 경제는 앞으로 큰 이변이 없는 한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언젠가는 소득 4만달러 시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저물가국이 되려면 지금부터 경제의 틀을 저물가형으로 착실히 짜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과 스위스 같이 소득이 늘어나면서 물가도 비싸지는 고소득고물가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경제를 고소득저물가형 사회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

첫째는 부동산가격(토지·주택) 안정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국토의 효율적 이용, 지역간 균형발전정책 등)이 지속돼야 한다. 부동산가격은 모든 생산원가와 생활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이다. 높은 집값과 땅값은 주거비 부담을 늘려 소득이 높아지더라도 빈곤을 가져오게 된다. 둘째로 사회인프라 확충을 위해 충분한 사회간접자본투자가 이뤄져야 한다. 도로, 항만, 교육, 문화, 의료, 환경분야 등에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면 물류비 등 사회적비용이 비싸지고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셋째 경제전반에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형태로든 낭비와 비능률은 물가에 전가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넷째 경제의 개방 폭을 확대(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확대 등)해 나가야 한다. 경제가 개방된 나라일수록 경쟁촉진 등으로 물가가 싸진다. 특히 서비스산업분야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선진국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서비스업분야(특히 의료, 법률, 회계, 교육, 금융부문에 대한 개방 폭을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끝으로 고소득저물가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져야 하며 특히 여성노동력의 노동시장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

우리 경제는 이제 1인당 소득 3만달러라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섰다. 이제 우리는 시계를 넓혀야 한다. 성장과 경제의 효율만을 따질게 아니라고 앞으로 소득 4만달러 또는 5만달러 시대에 우리 경제를 어떤 모습과 구조로 가져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착실히 실천해 나가는 경제운용자세가 필요하다.

/전 한국금융연구원장·메트로신문 전문위원

LG전자, 취준생 위해 '정장·스타일러' 기증

'열린옷장'에 정장 270여벌 등 전달

LG전자가 트롬 스타일러로 취업준비생을 응원한다.

LG전자는 2일 서울 광진구 '열린옷장'에 정장 270여벌과 트롬 스타일러 3대를 기증했다고 밝혔다.

열린옷장은 정장을 기부받아 저렴하게 대여하는 단체다. 2011년 취준생을 응원하고자 시작했다. 보유 정장은 2600여벌, LG전자가 10%를 채운 셈이다.

LG전자는 스타일러를 이용해 더 많은 취준생이 다양한 정장을 대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열린옷장' 김소령 대표는 "LG전자 임직원이 전달한 정장과 스타일러는 열



2일 서울 광진구에 있는 비영리단체 '열린옷장'에서 LG전자 임정수 한국B2B마케팅담당(왼쪽)이 열린옷장 김소령 대표에게 취업준비생을 위한 남녀 정장 270여 벌과 트롬 스타일러 플러스 3대를 기증하고 있다. /LG전자

린옷장을 찾아 온 청년들의 정장 고민을 해결하는 데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인사

- ◆**통계청** ◇일반고위직공무원 임용 △통계개발원장 전영일
- ◆**대선증권** ◇전무 신규선임 △리스크관리 부문장 길기모 ◇준법감시인 신규선임 △준법지원부문장 이성근 ◇부사장 신규선임 △자산신탁설립추진부 박현수 ◇지점장 신규선임 △대림동지점 서훈석 ◇부사장 전보 △WWM추진부 신재범
- ◆**서울대** △사무국장 박용수
- ◆**건양대학교병원** △심사평가실장 황원민

(진료부장·신장내과장 겸직) △응급의학과장 이재광

부음

▲강명선씨 별세, 이준혁(뉴스핌 정치부장)·이경화·이경희씨 모친상, 장소연씨 시모상, 민병철(SK텔레콤 매니저)·강정수(한국대학생교회 목사)씨 장모상 = 2일 오전 7시45분께,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8호실, 발인 4일 오전 9시. ☎02-2258-5965

▲양희섭씨 별세, 양선규(캐나다국립자연력연구소 연구원)·양태규(목원대 지능로봇공학과 교수)·양철호(한국수자원공사 직원)·양민자씨 부친상 = 1일 오후 11시57분께, 대전 을지대병원 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4일 오전 7시30분. ☎042-259-1082
▲신금자씨 별세, 김수영(전 기획재정부 공정정책 서기관)·김수일(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김수진씨 모친상 = 1일 오후 8시41분께,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4일 오전 5시30분. ☎02-3410-6920